

## 창세기(21)

창세기 3 장 6 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무화과나무는 범죄한 이후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나무를 걸치고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결국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ism(이즘)이나 이데올로기 같이 인간을 포장해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그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살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2 장 17 절 “너희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브가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도 먹더라.’ 그랬으면 그 당시에 바로 죽어야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난 영적인 상태 변화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소위 리셀주의자, 리셀이라는 사람은 옛날 장로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분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 여기서의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 무식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그런가 하면 그 무식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문만 황 닫아버리면 되는 줄 알고 있으니 참! 그런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은 평생을 여호와의 증인만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저 피하면 된다 해서 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사망이 있는 곳에 비추면 당연히 빛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뒷박 속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이 빛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빛이 가슴에서 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이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올 수가 없지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 안에 충만할 때 그럴 때 비추지 않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영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었을 때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써 입 열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해도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압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먹을 때 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고통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찬송시를 만들었지요.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초 당하셨는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할지는 몰라도 육신적으로는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시조인 러셀이라는 사람은 ‘아~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천년이기 때문에 930 세에 죽었으니깐 그날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자랑을 하는데 사실 보면 자기들 교리에 맞는 것만 배우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몇 구절만 우리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 장 22 절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 하면, 이 죽음이란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면 우리도 기원 4000 년 전에 죽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직 육신이 나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는 얘기 아녜요?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가져다 대면 깃소리 못하는데 이 말씀들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러셨지요.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그 시간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너무나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그 시간에 입을 열 때 성령께서 꼭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입만 열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그냥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쉽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평강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인간적으로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2 장 1~8 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다 부활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담 안에 죽었던 과거입니다. 그럼 무엇이 죽었습니까? 이것은 육신적 죽음이 아니지요. 우리 육신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 9 장 60 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제자가 말하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요? 여기에 두 가지 죽은 자가 나옵니다. ‘죽은 자들로’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즉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죽은 육신을 어떻게 장사 지내겠어요?

성경 말씀을 몇 마디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담의 죽음을, 이브의 죽음을 육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 장 22 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함이라 하시니라.” 아담은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원히 육신적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셨을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이것은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쫓으신 겁니다. 내쫓아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죄 값을 다 치르시고 영적으로 모두 살려놓은 다음에 영생을 주시려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 장에 가보세요. 생명나무가 또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설명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니코데모에게 육신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니코데모는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느냐 물었어요. 육신만 생각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육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영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니까 아는 겁니다.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으니까. 그 호흡이 뭐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난 거 아녜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에 관해서 내 건강에 관해서 의사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요즈음은 내장을 들여다보거나 하지요. 옛날에 수술을 못할 때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맥만 짚어서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의사가 얘기하니까. 의사가 얘기하니까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게 되면 잘못 믿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에서 말씀도 소문자로 되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에서도 하나님이 소문자고 소문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분이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피조물로 성인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지? 하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런 인간의 썩은 이성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이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 장에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통치자들의 지혜 영웅들은 아무리 위대해도 그들은 영광의 주를 죽였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 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주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계획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요.”라고 이렇게 일곱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 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이 영이 죽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1 장 26 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성부 성령 성자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 일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범죄했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결국 그가 죽었습니다. 죽은 혼이 되었다. 몸도 930 년을 사니까, 결국 서서히 늙어서 죽었다. 결국 늙은 것이 죽는 거예요. 비록 호흡은 끊어지지 않아도 늙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은

죽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분적으로만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은 영이 살아납니다. 혼은 구원받습니다. 육신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이 육신은 벗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 한 번 고린도후서 4 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추측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3,4 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 장 2,3 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 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또 나오지요? ‘정확한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위험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여기도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확한 인격의 형상이다. 몸이 있지만 우리가 인격도 있지요? 골로새서 3 장 9,10 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사람을 입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 장 2 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 분 그대로 그 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는 아담의 자손들은 없어진다는 애깁니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담의 자손에서 끊어져 나와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데,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라고 육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 있는 겁니다. 보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속성은 대가가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 장 20 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을 깨달은 요한과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런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아멘. 주님의 영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육신은 아직까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이것이 바로 휴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카전서 4 장과 고린도전서 15 장에도 나오지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육신까지도 변화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소망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도 항상 주위에 죽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사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너무 전도하기가 좋더라고요. 매일 전도하고 그렇게 좋은데 목사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 안에서 말씀만 전하고 밖에 나가 전도는 하지만 위치가 바뀌니까 그것이 잘 안 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려고 하니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는데요. 보니까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되고 나니까 뜻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정말 세상에 나갔을 때 죽은 사람이 준비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입만 열면 되는데 입을 안 여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흘러내리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신이 나고 말이죠. 우물물을 길어내야 자꾸 생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곳에 먼지와 검불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입을 벌려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지옥 가지 말아라!’ 간단한 말! 또 그것이 안 되면 수가성 여인처럼 ‘와서 보라!’ 영원히 살고 싶으면 와보라고 생명을 얻게 와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끌려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그냥 그 즉시 와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와보라’라는 말에 끌려왔지만 그들이 뭐라 고백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며칠만 묵어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을 묵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에 의함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찌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주신 성령께서 오늘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전화가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전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영접시켰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의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전화로 주님을 영접시켰어요. 그 분은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버님, 죄가 많으시죠?” “아~ 많지요.” “이제 암이 걸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 안 되지요.” 그래서 전화로 주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문명의 유익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아담의 자손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깔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뵙니다. 죽어있거나 잠자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 장에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나라 하셨습니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영적인 잠을 자니까 죽은 자들과 똑같이 사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